

No.130

Japan Weekly Digest

2012. 5. 12 ~ 2012. 5. 18

① 주간 경제 초점

- 일본TV산업 재편: 소니·파나소닉 제휴, 도시바·히타치 철수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일본의 FTA 전략, 난항
- 경제산업성,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
- 일본경제 1/4분기 고성장으로 완만한 회복세 선언

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대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① 주간 경제 초점 : 일본 TV산업의 재편, 소니·파나소닉 제휴와 도시바 히타치 철수

- 차세대 유기EL TV사업에서 오랜 라이벌 관계인 소니와 파나소닉이 제휴교섭에 들어간 반면, 도시바는 TV생산을 중단

□ 배경은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한 체제 구축

- 지난 3월 샤프와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그룹이 제휴, 그리고 이번 소니와 파나소닉의 제휴로 이어지는 소위 재편 도미노현상의 배경은 액정TV 및 휴대전화, 반도체 등 분야에서 일본기업들의 시장을 잠식해 온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소니와 파나소닉은 유기EL TV생산기술을 결합하여 대형 패널 생산시기를 단축하는 데 협력, 금년 중 유기EL TV를 발매할 예정인 삼성에 대항하려는 것임
- 브라운관 TV분야에서 세계 탑 이었던 소니는 액정패널 분야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삼성과 패널 합작생산에 들어갔으나, 삼성전자가 액정TV시장을 석권
- 소니는 TV사업 분야에서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금년 1월 삼성과 결별

□ 일본식 ‘자전주의’ 로부터 탈피 계기

- 파나소닉 오오히라 사장은 최근 결산 회견에서 유기EL패널 생산에 착수하더라도 모든 분야를 자사 단독으로 설비 투자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여 제휴를 시사한 바 있음
- 이는 주요 부품의 개발에서 조립에 이르기까지 자사에서 완결시키는 이른바 일본식 자전주의 노선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
- 소니 히라이 사장도 지난 4월 경영방침 설명회에서 유기EL TV사업과 관련하여 타사와의 협업도 시야에 두고 상품화하겠다고 하여 역시 제휴를 시사

□ 삼성 vs 일본·대만·미국 연합

- 지난 3월에는 대만의 홍하이그룹이 사실상 샤프의 최대주주가 되는 샤프-홍하이그룹 간의 자본제휴가 발표된 바 있음

- 전자기기의 수탁제조서비스(EMS)분야에서 세계 최대기업인 홍하이의 최대고객은 스마트폰 등의 분야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 애플
- 이번에는 소니가 오랜 라이벌이었던 파나소닉과 유기EL TV분야에서 제휴함으로써 삼성타도를 목표로 하는 구도가 형성하게 된 것임
- 소니는 대만의 우달광전(AUO)과도 유기EL TV 양산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대만을 저비용 거점으로 소니와 파나소닉이 생산 면에서 제휴할 가능성도 있음
- 최근 위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패널 및 반도체 등 기간부품을 내제하고 있는 삼성에 ‘일본·대만·미국 연합’으로 대항하게 됨을 시사

□ 도시바의 생산중단 발표와 일본 TV산업의 축소·재편

- 소니·파나소닉의 제휴발표 직후, 도시바가 후카야시공장의 액정 TV생산을 완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 후카야시공장은 고급기종 텔레비전의 주력공장으로서 최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에서의 해외생산 및 대만기업 등에의 생산위탁을 확대하고 있음
- 제휴교섭을 벌이고 있는 소니와 파나소닉도 내년도 텔레비전 세계판매 대수를 전년도 대비 각각 11%, 7%줄이기로 함
- 도시바에 앞서 발표한 히타치의 TV국내생산 종료까지 포함하면 일본의 TV산업은 대폭 재편·축소되는 것임

□ 재편이 재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소니, 샤프, 파나소닉 3사는 금년 3월 결산기에 각각 과거 최대 적자를 기록, 3사 합계 적자액은 1조 6천억엔 규모. 이들 3사 모두 CEO교체를 발표, 재생을 위한 변혁은 지금밖에 없다는 각오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일련의 재편이 재생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미지수. 과거 세계 전기산업을 견인해 온 일본의 TV기업들의 주식시가총액은 3사 합계로 3조엔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로 삼성의 1/4 수준
- 게다가, 양사 내부에서 유기EL TV사업의 장래 유망성에 관해 회의적인 태도와 철수한 경험 등을 이유로 제휴에 대한 신중론도 있음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일본의 FTA 전략, 난항

- 일본경제신문은 기사와 사설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등을 둘러싼 국내 의견대립을 이유로 일본 통상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촉구
 - 농업시장 개방 등을 둘러싼 국내 의견 대립으로 TPP의 교섭참가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일본이 목표로 하는 한일중FTA는 한·중FTA로 선수를 뺏기는 등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FTA전략이 더 늦어지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임
 - 통상외교의 성패는 언제, 어느 상대국과, 어떠한 순번으로 교섭하는가가 관건으로, 당해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교섭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것임
- 작년 11월 노다 수상이 일본의 TPP교섭에 관심을 표명한 직후만 해도 세계가 주목, 캐나다와 멕시코의 교섭참가를 유도하는 등 일본이 무역자유화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임
 -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일본이 참가교섭을 벌이자 초조해진 중국과 EU가 일본과의 연대를 서두르기 시작. 이에 한일중FTA, 일본-EU FTA도 조기교섭을 서두름에 따라 이들 3개의 FTA 호순환 조짐이 보임
- 노다 총리는 최근 TPP와 한일중 FTA를 병행시킴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시장을 확보한다는 양면작전을 구사하겠다는 뜻을 밝힘
- 일본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정부가 이렇게 유리한 상황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보고 있음.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여유를 되찾고 한국을 진영으로 끌어들여 한·중 FTA교섭을 시작할 예정에 있다는 것임
- 중국 주도의 FTA와 TPP는 FTA라는 간판은 같아도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름
 - 중국은 자국내 시장개혁을 기피하기 때문에, 관세철폐의 예외품목이 많은 느슨한 협정이 될 가능성이 큼. 아시아의 자유무역 흐름이 중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우 최대 시장인 중국 자체의 개혁이 진전되지 않음
 - 이에 비하여 TPP는 예외조치를 배제한 관세철폐 외에 경쟁정책 강화,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규칙통일, 기술기준의 조화 등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룰을 지향하고 있음

- 한편, 일본과 아세안은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동아시아 16개국에 의한 광역 FTA교섭을 금년 중에 개시하기로 합의. 이 역시 TPP와는 달리 예외품목을 인정하는 느슨한 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상호 사정을 봐주는 중국식의 통상정책 색채가 농후함
- 따라서 일본이 TPP교섭참가에 관한 판단을 미루면 미룰수록 일본 자신의 통상전략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임
- 이상과 같이 TPP 등 일본의 핵심 FTA정책에 진전이 없는 것은 농업분야의 반발을 중심으로 한 일본시장 개방에 대한 불안 때문인 바, 이의 해소가 최우선과제로 되고 있음
 - TPP는 미국 주도로 9개국의 확대교섭이 진전되고 있는데, 일본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마감인 6월말까지 통과시킬 방침이기는 하나 확대교섭 참가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더욱이 농업이 TPP 등 FTA추진의 족쇄로 계속 작용하는 경우, 앞으로 호주 및 캐나다, EU 등 농업강국들과 FTA교섭이 어렵게 된다는 것
 - 나아가 한일중 FTA는 금년 중 교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중국이 한·중FTA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한·중FTA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한일중FTA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일본경제신문은 분석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

- 경제산업성의 전력시스템개혁 전문위원회에서 18일 가정용을 포함, 전력소매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봄
- 인건비 및 연료비 등 일정 이익을 포함시키는 총괄원가방식도 폐지, 전력 업계에 경쟁원리를 도입. 전력회사의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 분리 등 전력 자유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일반 가정의 전력구입방법도 확대되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가정용 전력자유화는 일본 정부가 금년 여름 완성 예정인 신에너지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봄이나 전기사업 개정안을 제출, 2015년쯤 실현될 예정임

□ 일본경제 1/4분기 고성장으로, 완만한 회복세 선언

- 일본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GDP 속보치에 의하면 금년 1/4분기 실질 GDP성장율이 연율로 4.1%(전기비로는 1%)로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자동차 판매를 중심으로 개인소비가 견조세를 보인 외에 부흥수요도 경기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
- 18일 일본경제신문이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경제전망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평균 2.2%로 2년 만에 플러스로 나타남
- 일본경제신문 조사에 의하면, 올해의 경기의 지렛대 역할은 민·관의 부흥수요. 상반기에는 토목공사 등 공공투자와 주택투자 등 민간의 부흥수요가 각각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내각부 속보치와 관련하여, 4.1%의 고성장은 작년말 부활된 에코카보조금의 효과가 컸으며 2/4분기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하반기 경제성장의 관건은 수출임. 당분간은 미국경제의 견조로 대미 자동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그러나 미국에서 각종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금년 말로 종료되는 점, 유럽재정위기 영향 등으로 인한 중국·신흥국 경제의 감속 등 수출관련 리스크는 상존
- 따라서 부흥수요의 감소를 얼마만큼 수출로 보전할 것인가가 경기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한편, 일본정부는 경기판단 표현과 관련하여, 지난달까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를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다’로 상향 수정함
 - 이는 1/4분기 고성장에 따라 개인소비 및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던 데 따른 것이며 9개월 만에 상향 수정한 것임
 - 또한, 대지진 피해가 있었던 작년 3월부터 경기판단에 사용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삭제되었음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

일본기업	발표일자	업종	대상국가/기업	사업형태/내용
일본특수도료	2012.5.13	자동차용 흡음제	인도네시아	직접투자/투자규모 10억엔, 흡음제 등 생산공장 신설
대일본인쇄	2012.5.14	포장재	베트남	직접투자/포장재 생산공장 신설, 투자규모 40억엔
삼화홀딩즈	2012.5.14	보수·시공	미국/오버헤드 도어(ODC)	직접투자/자회사 ODC에 2 억엔 투자
야마하발동기	2012.5.15	이륜차	인도	직접투자/이륜차공장 설립, 투자규모 220억엔
아사히카세히	2012.5.15	프린트배선 기관 제조용 필름부재	중국	직접투자/필름부재공장설립, 투자규모 20억-30억엔
니치레이	2012.5.15	식품	미국/이노바지 안쿠이진	직접투자/냉동식품개발기업 을 M&A, 주식의 51%취득
미쯔비시상사	2012.5.16	액화천연가 스	캐나다	자본제휴/한국가스공사 등3 개사와 합작생산, 총사업비 1조엔이상, 권익비율 20%
미쯔비시수지	2012.5.16	농업용필름	중국	직접투자/투자규모, 20억엔, 고성능수지필름 전용생산공 장 설립
후지츠텐	2012.5.16	자동차용오 디오제품	인도	자본제휴/합작기업 설립, 자동차용 오디오제품 제조, 판매
니프로	2012.5.16	바이오후발 약	독일/센드	판매제휴/센드사와 제휴, 일본시장에 판매
인포테리아	2012.5.16	소프트	미국/엑스팅	직접투자/매수, 투자규모 1 억엔
중부전력	2012.5.17	가스전	호주/익시스프 로젝트	직접투자/가스전 권익 0.735%취득
히타치화성	2012.5.17	자동차용마 찰재료	태국	직접투자/생산공장 신설
NEC	2012.5.18	PC부품	중국/레노보그 룹	자본제휴/합작사업으로 PC 부품의 조달·개발
동경전력, 미쯔 비시상사 등 민· 관 4개사	2012.5.16	천연가스전 개발	호주	직접투자/권익10%취득, 투자규모, 3500억엔

* 자료: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1) 『인구보너스 문제와 노동력 문제』 국제문제연구소, 5월15일

*출처: http://www2.jiia.or.jp/pdf/resarch/H23_competitiveness/1komine_competitiveness.pdf

(2) 『엔고 종합대응책에 대한 평가』 내각부, 5월15일

*출처: http://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12/0511_3_matome.pdf

(3) 『인프라의 해외전개, 일본은 종가』 외무성, 5월15일

*출처: http://www.mofa.go.jp/mofaj/press/pr/gaikou/vol8/pdfs/gaikou_vol8_19.pdf

(4) 『2011년 대중직접투자동향』 JETRO, 5월15일

*출처: <http://www.jetro.go.jp/world/asia/reports/07000950>

(5) 『중소부품 서플라이어의 경영실태와 아시아에서의 전개현황과제』 JETRO, 5월17일

*출처: <http://www.jetro.go.jp/news/releases/20120516125-news/shiryo1.pdf>

(6) 『최적통화권으로서 아세안+3』 경제산업연구소, 5월17일

*출처: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2050008.html>

(7) 『행복도의 정량화에 관한 조사연구』 동북활성화연구센터, 5월17일

*출처: http://www.kasseiken.jp/pdf/news/120516_press.pdf

(8) 『경제산업정책 관련 정책감세의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산업성, 5월18일

*출처: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1fy/E001938.pdf